

## 에세이

## 식품, 식약처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

이 동 호

법무법인(유) 화우 전문위원

삼성동 사무실 건너편으로 내려다보이는 봉은사에 내리는 햇살이 무척이나 따사롭게 느껴지는 가을날 오후에, 모처럼 여유롭게 노트북에 마음을 옮기며 지나온 날들을 천천히 돌아다본다.

기억에도 새롭게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다보면, 내 또래가 다 그러했겠지만 참으로 시대적으로는 격동의 시간 한가운데에 있었고 나 또한 그 한가운데 속해 있었다.

유신시대가 막바지로 치닫던 1979년 10월 16일 부마항쟁의 시발점이 된 부산대학교 교내 시위를 부속고등학교 고3 교실에서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은 다시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몰랐다. 간간이 영어 선생님의 날 선 정부 비판으로 가슴속에 뜨거운 것이 이따금 자리 잡곤 했지만, 대학에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예비고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1 때 마지막으로 이과반으로 갈 건지 문과반으로 갈 건지의 고심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듯했었다.

남학생인 경우 대학의 문이 이과 쪽이 넓으니 거기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담임 선생님의 그 말씀에 망설임 없이 진로를 택했다. 그것이 훗날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었다는 것은 먼 시간이 지나간 후에 인지하였지만...

나는 뛰어나지 못한 성적이었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과목은 국어, 그중에서 고문을 좋아하였고, 국사, 상업(상업, 공업, 농업 등 선택과목 중 도시지역이라 상업), 화학 과목 등이 재미있었다.

담당교 수학이나 물리 과목은 힘들었다는 쓴웃음의 잔영만 남아있다. 그런 것은 선택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입시를 치르고 대학으로 갔다.

대학 1학년은 그야말로 어떻게 다녔는지, 제대로 지냈는가가 하는 기억만이 있다. 입학하자마자 3월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자욱한 최루탄 가스 냄새가 교내를 진동하고 급기야는 5월 18일 전국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 학내를 들어갈 수도 없었다.

아마도 올해 입학을 한 신입생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입학식, 개강, 오리엔테이션, 축제라는 단어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1학년 학점을 어찌 받아 2학년으로 진급했는지는 아득하지만, 1학년 말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바꾸고도 남는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다. 계열별 모집으로 대학에 들어갔지만 1학년 말에는 세부 전공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교양필수라는 '미적분학'이 힘들었던 때였다.

그때 고민이 깊어졌다. 계열에 속해 있는 각 학과의 교과 과목들을 살펴보았다. 공과 계열답게 모든 학과 과목에 소위 '3역학'이 포진해 있었다. 너무나 힘들어 보였다. 그런데 딱 한 학과 '식품공학과'는 '열역학' 한 과목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

그게 내 평생의 길이 될지는 그때는 상상도 못 했지만, 아무튼 나는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전공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렇고 그런 중간 정도의 대학 생활을 즐기고, 크게 인생을 고민하지 않는 평범한 젊은 학생이었다. 3학년 복학을 하면서 막연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어디든 마음을 다잡을 소속감이 필요했다. 나는 실험실 문을 두드렸고 흔쾌히 나를 받아주었다.

다행히 3~4학년은 실험실에 속해 있으면서 많은 새로운 경험의 시간을 얻었다. 물론 실험실에 속하지 않은 다른 동기생들과는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고, 모든 생활은 실험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석·박사과정에 있는 선배들을 보면서 대학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좋아 보여서 막연히 대학원 진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4학년이 되면서 한두 명씩 취업하는 동기들이 생겼다. 공채를 통해서, 추천을 통해서, 롯데, 농심, 오뚜기, 제일제당, 동원 등 큰 기업이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하고 나갔다. 4학년 2학기가 되니 대학원을 진학하는 몇 사람 빼고는 별로 남지 않았다. 그 때는 그러했지만...

어렵사리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대학원으로 진로를 정했다. 쉽지 않은 부모님의 지원이 있었다. 아래로 두 동생을 포함해서 3명의 학비가 필요했다. 그래도 국립대인 나는 학비가 그 당시만 해도 사립대의 1/3 정도여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너무나 어려운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되었다. 나는 어떠한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 있는 아들 대학 보내는 것도 부담스러워했었으니까.

석사 1년 차 때는 생각보다 고민에 빠진 시간이었다. 주어진 테마의 실험이 생각처럼 순조롭지가 못했다. 같이 석사과정을 들어간 동기들은 실험을 진행하면서 논문 투고도 진행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우여곡절을 겪고 석사과정을 마치면서 박사과정으로 진로를 결정했다. 선배들 대부분이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으로 갔다.

나도 그것이 목표가 되었다. 그때 처음으로 정확하게 인생 목표가 세워졌다. 그러나 학비가 문제가 되었다. 아버지를 설득했다. 입학할 때 한 번만 도와주면 나머지는 내가 해결하겠다고. 허락해 주신 아버지도 힘들어하셨을 것이라 짐작해 본다. 결국 뒷감당은 끝까지 당신 몫이었으니까.

1992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쉽지 않은 인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학의 정규자리를 얻기는 쉽지 않았고, 소위 ‘보따리상’으로 생활을 꾸렸다. 아내에게 면목이 없었고 어려운 생활을 안겨줘야만 했다. 퇴근 후 아들과 잘 놀아주는 그런 아빠가 되지도 못하는 어려운 시간이 계속 흘러갔다. 1996년에 우연히 현재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다. 내 인생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공직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실에서 36살 늦깎이 공무원의 첫발을 내디뎠지만, 그것이 그렇게 25년 세월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미련으로 남아있는 대학으로 가는 길이 계속 있을 줄 알았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식품을 전공하고서 공직에서 식품 전공을 계속 살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참으로 행운이었다는 생각이다.

시험분석실의 생활은 그다지 생소한 분야는 아니었다. 대학원에서 하던 실험실 경험으로 감당할 수 있었지만 늦은 나이의 공무원 생활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결코 녹록지 않았고 몸은 힘들지 않았지만, 마음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시간은 또 나를 싣고서 그렇게 흘러갔다. 7년의 부산청 생활을 보내고 서울 은평구 녹번동 본부로 올라올 기회가 주어졌다. 43년의 부산 생활을 접고 미련 없이 2003년 2월에 본부로 옮겼다. 지금은 ‘식품기준과’로 이름이 바뀐 ‘식품규격과’에서 본부 생활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였고, 그것이 살아갈 밑거름이 되었다. 새로운 인생이었다. 기업의 일도 알게 되었고, 업체 사람들과도 인연이 되었다. 더불어 타 부처 직원들과의 업무 관계도 많았다. 덕분에 많은 경험과 능력을 다지는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힘들었다.

쓰레기만두 사건, 장어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사건, 김치 기생충 알 사건, 분유 멜라민 사건 등등 정말로 사건·사고의 연속이었다. 어떻게 다 견뎌냈는지 모르겠다. 일요일 오후만 되면 월요일부터 밀려들어 올 업무 생각으로 가슴이 답답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2006년 조직된 ‘유해물질관리단’ 시절을 보내면서 그중에서도 2007년 서해 태안 앞바다 유조선 침몰로 인한 수산물 오염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된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이 주어진다고 했지만 참으로 감당하기가 벅찬 날들이었다. 내 인생 40대에 가장 힘들었지만 많은 경험을 쌓고 살아갈 날에 도움이 되는 가장 열정적인 시절이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식품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로 2013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출범은 많은 의미, 특히 식약처 직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아닐 수 없었다.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법 제·개정권이 주어진 게 너무나도 와 닿았던 변화된 일이었다. 그렇게 본부 생활을 하면서 위해관리과, 위해기준과, 식생활안전과, 주류안전관리단, 식품안전정책과를 거치면서 기준규격관리, 어린이 식생활관리, 주류관리, 수출지원업무, CODEX 업무 등 여러 분야에서의 많은 경험이 살아가는 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과장 승진 후 발령받은 광주식약청에서는 잊고 있었던 글 쓰기의 꿈도 되살아났고 시간을 얻어 여행한 남도의 추억과 따뜻한 직원들과의 인연은 평생을 따뜻하게 하는 화투불이 되었다. 1년 반의 광주식약청 생활을 마치고 다시 복귀한 신중유해물질팀에서 관리하였던 수많은 R&D 과제들과 - 지금도 그 과제들이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 있지만 - 과제 수행 교수님들과의 인연도 나에게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다. 공직생활의 마지막은 유해물질기준과에서 3-MCPD 기준강화, 농산물 PLS 제도의 정착화, 기준 미설정 항생제의 기준강화를 시발점으로 하는 축수산물 PLS 제도 추진 등으로 마무리되었다. 너무 짧은 시간으로 인해 많은 아쉬움이 남았지만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대로 미련을 조금 남겨두고 마무리하는 것도 아름다운 퇴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다. 어쩌면 식품을 전공하고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공직자로 퇴직한 것도 내 인생에 큰 행운이었다는 생각이다.

물론 처음의 꿈과는 다른 길로 인생을 걸어왔지만, 과연 우리 사회에서 자기 전공을 살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참으로 복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까? 더군다나 공직에서의 다양한 지식 습득과 경험이 퇴직과 더불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가 되어 법무법인(유) 화우에서 그 경험을 살려 인생 2모작을 하고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한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폴란드 시인 비스와바 심보르스카는 그녀의 시 「두 번은 없다」에서 말했다.

“두 번은 없다. 지금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 훈련 없이 죽는다.”고 하였다.

나 또한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러할 것이다. 누구에게도 두 번의 인생은 없다. 그리하여 나는 그저 주어진 길에 꾸준함을 보태 걸어갔을 뿐이었다.

이제 인생의 반을 넘어 60년 인생을 살아왔지만, 정말 뜻밖의 선택인 ‘식품’으로 식약처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국민들과 더불어 ‘밥’을 먹고 살아왔고, 또 다른 주어진 길에서도 ‘식품’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인생의 한편 드라마라 아니할 수 없겠다. ‘식품’을 전공하고 같은 세상에서 서로 일을 나누고 같이 고민하는 식품업계 분들, 식품 관련 교수님들 그리고 식품위생 관련 공직자 여러분과 더불어서 오늘도 한결같이 국민의 안전한 식탁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기원해 본다.

길위에 서서  
망설이지 마라  
걷다보면  
그 끝에서 같이 만난다

잠시 지나가는 길에서  
사막을 만나기도 하고  
거친 풍랑속에서 헤매이고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고요한 별빛이 쏟아지고  
향기로운 꽃밭을 거닐고  
단비를 마시며  
우뚝 서리다  
..... (중략)

이동호 / 시집 '세상을 그리다' 중에서